

동사 상 대전(大戰) —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하는가? —

김두석*

1. 서론

그리스어 동사 상(verbal aspect)은 그리스어 동사 시제 형태의 의미론에 관한 논쟁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신약성경 그리스어 동사 상 논쟁은 맥케이(K. L. McKay)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1989년 포터(S. E. Porter)와 1990년 패닝(B. M. Fanning)이 각각 독립적인 입장을 개진하면서 신약성경 연구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¹⁾ 포터 스스로도 동사 상 연구가 신약성경 그리스어 문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해당 연구는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를 보는 관점의 지평을 확장시켰다.²⁾ 또한 신약 본문의 주제와 의미를 제안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법적 요소로 고려될 만큼 이 연구는 신약학자들에게 큰 과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중요한

* 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광신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jclife2004@gmail.com.

1) 그리스어 동사의 상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74년 맥케이(K. L. McKay, *Greek Grammar for Students: A Concise Grammar of Classical Attic with Special Reference to Aspect in the Verb*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74])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그 이듬해인 1975년 J. P. Louw, “Verbal Aspect in the First Letter of John”, *Neotestamentica* 9 (1975), 98-104에서도 다루어졌다. 하지만 논의의 대중성은 1989년 포터(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 Lang, 1989])를 시작으로 1990년 패닝(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26-28.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학자들도 동사 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³⁾

다수의 국내외 학자들이 동사 상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동사 상의 분류와 정의 그리고 기능과 의미에 대한 합의점은 묘연하다.⁴⁾ 특히 국내 학자들의 동사 상 연구의 결과물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⁵⁾ 첫 번째 문제점은 기울여진 지형도이다. 맥케이 이후로 포터(1989)와 패닝(1990)은 1년의 간격을 두고 동사 상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 콘스탄틴 캠벨(C. R. Campbell, 2007)은 그들보다 약 20년 후에 그의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포터와 캠벨 사이에 많은 학자들이 동사 상 논쟁에 참전했고 캠벨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뛰어들었다.⁶⁾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포터, 패닝, 캠벨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는 —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 패닝과 캠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예상 가능한 이유가 있다. 먼저 그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포터의 견해는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스어 시

-
- 3)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신약연구」 10:4 (2011), 789-823;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신약연구」 10:4 (2011), 941-976; 박윤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Prominence Markers)”, 「신약연구」 9:2 (2010), 309-334; 우상혁,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경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0 (2011), 59-83;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비추어 본 마가복음의 서사 구조”, 「신약논단」 28:3 (2021), 501-534;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신약논단」 29:1 (2022), 1-30; 장성민, “마가복음의 부사적 분사 번역 제안: 마가복음 1:1-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2 (2019), 301-342; 장성민, 『중급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성경원문연구」 54 (2024), 210-244; 정창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연구: 요한1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4 (2024), 189-209.
- 4) 사실 절대적인 연구물의 숫자를 봐도 이 분야의 연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언어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대어 문법에 대한 깊은 고찰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 5) 국내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장성민의 소논문이 잘 지적하고 있다.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213-216.
- 6) R. J. Decker, *Temporal Deixis of the Greek Verb in the Gospel of Mark with Reference to Verbal Aspect*, Studies in Biblical Greek 10 (New York: Peter Lang, 2001)과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3 (New York: Peter Lang, 2007)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M. B. Olsen,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7); D. L. Mathewson,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eiden: Brill, 2010); D. S. Huffman, *Verbal Aspect Theory and the Prohibitio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6 (New York: Peter Lang, 2014); F. G. H. Pang, *Revisiting Aspect and Aktionsart a Corpus Approach to Koine Greek Event Typology*, LBS 14 (Leiden: Brill, 2016)를 참고하라.

제 형태에 시간적 의미가 전혀 없다는 포터의 이론은 그리스어 동사 시제의 전통적인 해석을 모두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포터의 이론이 언어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언어학적 방식은 성서학 연구에서 비교적 생소한 접근법이다. 이와 같은 언어학적 배경은 학자들이 포터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혹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받게 하였다.

필자가 발견한 두 번째 문제점은 국내 연구가 포터, 패닝, 캠벨의 이론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그들 사이에, 특히 포터와 그를 비판하는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⁷⁾ 대신 다수의 국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적용과 해석, 번역에 관한 부분이다.⁸⁾ 예를 들어, 고병찬과 김주한의 논문은 그리스어 동사 상의 국내 연구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포터, 패닝, 캠벨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탁월한 논문이다. 하지만 학자들 간의 다양성을 소개한 후 동사 상을 주석적 차원에서 적용할 때 이론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더 집중하자는 말과 함께 요한복음 프롤로그의 해석으로 곧바로 넘어간다.⁹⁾ 그리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포터의 입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¹⁰⁾ 논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의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인지 제안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완료시제에 있어서는 포터, 패닝, 캠벨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에 집중한다는 말은 세 가지 동사의 상 중 문제 가 되는 시제 형태의 논의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성민은 그의 최근 논문에서 국내 선행연구들이 이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보다는 활용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것이 장성민의 논문의 강점이자 최고의 기여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서는 본고도 동일한 관점을 보인다. 하지만 장성민 역시 문제가 되는 완료시제 형태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 상태상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완료상과 미완료상에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패닝의 회고를 기초로 논지를 전개하는데, 사실 패닝은 완료시제 형태를 완료상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장성민은 완료상을 설명할 때 부정과거시제 형태만을 언급하고 있다.¹¹⁾

7)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역시 기호로서의 언어와 의미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언어학적 이해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각주 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들의 연구를 참고하라.

9)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802.

10) 물론 고병찬과 김주한은 포터의 현저성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사 상의 분류에 있어서는 포터의 심분적 구조를 따른다. Ibid., 805를 보라.

11)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210-244.

박윤만은 빌레몬서의 동사 상과 현저성에 대한 논의에서 동사 상과 개별 단어를 넘어 담화의 범주에서 동사 상이 갖는 기능과 담화 구조에서의 역할을 탁월하게 제안한다. 박윤만은 캠벨의 관점을 동사 상에는 시간적 개념이 전혀 없다는 포터의 무시간적(atemporal) 주장과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패닝 사이의 중립적인 관점으로 평가한다.¹²⁾ 이를 위해 캠벨의 의미론과 화용론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다.¹³⁾ 캠벨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만약 동사 상을 의미론적 범주로 정의한다면 화용론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시간적 의미를 동사 상 논쟁에 포함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캠벨이 잘 설명하듯이 — 포터도 동의하는 바 — 동사의 시간적 의미는 문맥에서 결정되는 화용론의 영역인 데 반해, 동사 상 논쟁의 핵심은 동사 시제 형태가 부호화되어 동사 상의 의미 범주를 규정하는 의미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캠벨은 포터와 패닝 사이의 절충적 입장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과 화용론을 동사 상 논쟁에 모두 포함시키는 자신만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캠벨의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제안한 박윤만이 실제 그의 분석에서는 포터의 삼분적 구조를 적용한다.¹⁴⁾ 캠벨과 포터 사이에 상호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양쪽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정창욱 역시 완료시제에 대한 학자들 간의 상이한 이해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의 논문에서는 시제 형태의 번역에만 집중하고 있다.¹⁵⁾ 하지만 동사 상 이론과 번역은 매우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번역은 동사 상 분석을 통한 의미를 파악한 후 제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시제 형태의 번역에는 문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상 자체만으로 번역의 원리를 제안할 수는 없다. 즉, 정창욱의 논문은 동사 상의 논쟁이라기보다 완료시제 형태의 번역에 집중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판은 사실 캠벨에게도 적용 가능한 비판이다. 왜냐하면 캠벨 자신이 동사 상 번역을 중심으로 완료시제 형태의 의미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동사 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신약성경 그리스어 동사 상 이론의 주요 학자들 간의 차이점을 잘 설명했지만 왜 그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은 포터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이 캠벨과 패닝과 다른 근본적인 요인을 설명한다. 그것은

12)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945.

13)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19-20.

14)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946.

15)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연구”, 189-209.

첫째, 언어의 체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둘째, 동사 상 연구를 담화의 범주까지 확대하여 담화 내에서 동사 상의 분포와 의미에 집중한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2. 동사 상 대전: 그리스어 동사 상의 핵심 논쟁

동사 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인 개념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그것은 동사 상이 동사의 시제 형태의 의미론에 관한 것으로, 동사의 행위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문법적 선택이라는 인식이다.¹⁷⁾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 동사 시제는 동사 행위의 실제 발생 시점(과거, 현재, 미래 등)이나 동작의 종류(단회적, 지속적 등)를 나타내지 않고 동사의 행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계열체적(paradigmatic) 선택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동사 상 논쟁은 첫째,

16) 사실 이 부분이 동사 상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캠벨과 패닝 그리고 월라스(D. B. Wallace)와 같은 학자들은 포터의 동사 상 이론을 비판하며 시제 형태에 관한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런데 그들의 비판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미론적 관점의 의미와 화용론적 관점의 의미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17) 그리스어 동사 상 연구의 선구자인 맥케이는 동사 상을 “저자가 각각의 행위와 사건을 묻을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그 행위와 사건을 표기하는지를 나타내는 동사 시스템의 범주”라고 정의한다. K. L. McKay,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SBG 5 (New York: Peter Lang, 1994), 27. 포터는 “동사 상은 시제 체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루는 데 사용하는 종합적 의미 범주로, 동사의 행위/사건의 개념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선택을 문법화한다”고 정의한다.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88. 포터에 따르면 동사 상은 그리스어 동사 시제 형태에 의하여 부호화된 의미론적 특징으로 다양한 법(mood)—심지어 부정사와 분사를 포함한—에 걸쳐 사용되며 시간적 의미와 동작류(Aktionsart)와는 구별된다. S. E. Porter, “Three Arguments Regarding Aspect and Temporality”, *Linguistic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84. 패닝 역시 동사 상을 동사의 문법의 영역으로 정의하며 동사의 행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동사 상은 내재적으로 동사 행위의 시간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저자가 특정 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선택하여 표현하는 주관적 범주이다.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84. 캠벨 또한 동일하게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동사 상은 저자가 동사의 행동, 사건, 혹은 상태를 외부자적 관점 혹은 내부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론적 범주이다.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37.

18) S. E. Porter, “In Defence of Verbal Aspect”,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Theory and Practice*, Studies in Biblical Greek 6 (New York: Peter Lang, 1996), 37;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88. 이와 같은 이해는 그리스어 문법에 언어학적 접근을 도입한 개념이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동사 상 이론은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동사 상의 구조, 둘째, 동사 상의 의미론과 시간성의 관계, 셋째, 동사 상과 의미적 현저성(prominence) 등의 세 가지 영역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현저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연구에서 다를 것으로 기약하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동사 상 구조와 시간성의 관계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완료시제(현재완료, 과거완료)이다. 완료시제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그리스어 동사 상의 구조와 의미를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포터는 동사 상의 구조를 삼분적 구조(tripartite structure)로 제안한다. 포터에 따르면 동사의 완료상(perfective aspect)은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표현되고,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은 현재와 미완료시제 형태로, 그리고 상태상(stative aspect)은 현재완료와 과거완료시제 형태로 표현된다. 포터에 따르면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부호화된 완료상은 멀리 떨어진 관찰자적 관점을 나타낸다. 즉, 동사의 행위를 원거리에서 스냅샷을 찍듯이 표현하

전환을 가져왔다. 그리스어 동사 시제에 관한 문법의 흐름과 발전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체계화된 그리스어 동사의 문법적 요소를 제시한 사람은 디우니시우스 트락스(D. Thrax)였다. 그는 동사의 문법적 요소를 법(mood), 태(voice), 종류, 형태, 수, 인칭, 시제, 활용의 8가지 요소로 제안한다. 그는 동사의 시제 형태를 시간적 의미로 판단하였다. D. Thracis, *Ars Grammatica*, Gustavus Uhlig, ed. (Lipsiae: B. G. Teubneri, 1883), 46-48. 두 번째 시대는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로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어 문법학자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책처럼 그리스어 문법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지 와이너(G. B. Winer)의 문법이(1822년)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법책이다. G. B. Winer, *A Treatise on the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Regarded as a Sure Basis for New Testament Exegesis*, W. F. Moulton,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82). 이 당시의 문법은 라틴어 문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와이너 역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실제 동사 행위의 시간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시대는 비교문학학의 시대로서 19세기 말의 그리스어 문법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언어 사이의 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모계 언어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는 문법의 체계에 큰 발전을 일으켰으며 명사의 격과 동사의 시제와 같은 문법적 요소의 체계를 세우게 된다. 게오르그 커티우스(G. Curtius)가 그와 같은 시도를 최초로 한 문법가였다. G. Curtius, *The Greek Verb: Its Structure and Development*, A. S. Wikins and E. B. England, trans. (London: John Murray, 1880). 하지만 이 시기에 꽂목할 만한 진일보를 가져온 문법학자는 칼 브루그만(K. Brugmann), 몰튼(J. H. Moulton), 프리드리히 블라스(F. Blass)와 로버트슨(A. T. Robertson)이다. K. Brugmann and B. Delbrück,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2nd ed., 5 parts in 9 vols., Strasburg: Trübner, 1897-1916, Reprint (Berlin: de Gruyter, 1967); F. Blass,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 J. H. Moulton,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Prolegomena* (Edinburgh: T. & T. Clark, 1908);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14); E. Schwyzer, *Griechische Grammatik auf der Grundlage von Karl Brugmanns "Griechischer Grammatik"*, 4 vols., HA 2/1 (Munich: Beck, 1939-1971). 이들의 가장 큰 업적은 동작류(Aktionsart)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는 것으로, 이는 행위가 정적이며 완결된 상태처럼 묘사하는 것이다. 미완료상은 현재시제와 미완료 시제로 부호화되는데, 이것은 내부자적 관점으로 동사의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 함께 있는 관점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상태상은 완료시제로 부호화되는데, 이는 동사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저자의 관점이라고 설명한다.¹⁹⁾ 즉, 상태상에서 ‘상태’란 동작류에서 이야기하는 동사 자체의 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연관되는 동사의 행동을 저자가 상태적(stative, not as a state)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포터에 따르면 담화 안에서 각각의 상은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데, 완료상은 배경(background)과 같은 역할을 하며 미완료상은 전경(foreground), 그리고 상태상은 가장 도드라지는 최전경(frontground)의 역할을 한다. 또한 동일한 동사 상을 부호화하는 두 가지 다른 시제 형태는 원근성(remoteness)을 통하여 구별한다.

패닝과 캠벨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이분적 구조(bipartite structure)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분적 구조를 주장하는 패닝과 캠벨 사이에도 불일치가 존재한다. 패닝은 완료시제를 완료상에 포함시키며 동작류, 시간적 의미, 그리고 동사 상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고 제안한다.²⁰⁾ 그에 따르면 완료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적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패닝은 완료시제가 동사 상에서는 완료상에 해당되며, 시제적 의미에서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동작류에 있어서는 상태적이라고 설명한다.²¹⁾ 패닝에 따르면 완료시제는 동사의 행위가 시작되는 과거 시점과 그것이 완료된 현재의 상태를 모두 보여 준다.²²⁾

완료시제의 동작류에 관해서 패닝은 그의 주장의 많은 부분을 철학자 제

19)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9-39; S. E. Porter, “The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The Meaning of the Greek Perfect Tense-Form in the Greek Verbal System”, *Linguistics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98, 211; D. L. Mathewson and E. E. Ballantine,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113.

20)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12-120.

21) Ibid., 116-117. 올슨(M. B. Olsen)과 크렐린(R. Crellin)은 패닝의 입장을 지지하며 완료시제를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한 시간적 의미와 동사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R. Crellin, “The Semantics of the Perf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2016), 430-454. 크렐린 역시 동사 상의 구조를 양자 구조로 판단하며 캠벨의 제안보다는 패닝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한다. 즉, 완료시제는 행위의 종결 시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R. Crellin,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JSNT* 35:2 (2012), 202.

22)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16-117.

노 벤들러(Z. Vendler)가 제안하는 4가지 형태의 행위 이론에 의존한다.²³⁾ 그중 하나가 바로 상태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벤들러의 설명에서 동사의 상태는 반드시 동작류나 혹은 어휘적 요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또한 패닝의 상태에 대한 동작류적 이해는 동작류의 상태(state)와 동사 상의 상태상(stative aspect)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동작류의 상태는 동사의 실제 행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동사 상의 상태상은 동사의 행위를 상태로 인식하는 화자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사 상에 관하여 패닝은 완료시제를 완료상에 위치시키는데 그 이유는 완료시제가 행위의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패닝의 주장은 언어학적 접근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 접근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문법의 체계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과 용례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동사 상 이론이 언어학적 문법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패닝은 언어학에 대한 설명이나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화용론적 관점에 국한된 설명을 한다.

완료시제에 시간적 의미를 포함한 패닝과 달리 캠벨은 공간성(spatiality) 이론을 통해 동사 상을 설명한다. 캠벨에 따르면 완료상은 저자의 관점이 동사의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미완료상은 근접거리에 있다. 캠벨은 서술형식의 글에서는 완료시제가 현재시제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완료시제는 미완료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²⁴⁾ 그리고 완료시제와 미완료시제의 구분을 강화된 근접성(hightened proximity)으로 설명한다. 즉, 완료시제와 현재시제는 모두 미완료상이지만 완료시제가 현재시제보다 근접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²⁵⁾ 특히 캠벨은 완료시제 형태를 동사 상 자체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 특히 번역의 요소와 문맥적 관점을 접목함으로써 동사 상의 논의를 벗어난 확장된 영역에서 완료시제를 정의한다.²⁶⁾ 그는 완료시제와 현재시제가 번역상의 차이점이 없으므로 완료시제는 미완료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²⁷⁾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또한 동사 상의 의미론적 체계가 아닌 화용론적 관점에서 완료시제 형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23) Z. Vendler,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1957), 143-160.

24)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187.

25) *Ibid.*, 197.

26) 캠벨은 포터가 제안하듯이 완료시제를 상태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90%에는 적절할지라도 10%의 경우에는 번역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무결한 이론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C. R. Campbell, "Breaking Perfect Rule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Greek Perfect", S. E. Runge, ed., *Discourse Studie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A Festschrift in Honor of Stephen H. Levinsohn*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1), 139-155.

27)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193-194.

다. 포터의 상태상을 비판하면서 캠벨은 동사의 상태성(stativity)은 동작류에 관한 것이지 동사 상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수의 언어학자가 상태성을 동사 상에 위치시키고 있다.²⁸⁾ 더욱이, 포터에 따르면 동사상에서의 상태상은 동작류에서 이야기하는 동사의 실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사의 행위가 주어에 일어난 상태를 저자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으로 동사 자체의 상태와 무관한 것이다.²⁹⁾

정리하자면 동사 상 이론의 구조에 있어서 완료시제의 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가장 첨예한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터는 상태상, 패닝은 완료상, 그리고 캠벨은 미완료상에 각각 완료시제 형태를 배치한다. 이를 시각화하여 간략하게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동사상 구조의 차이

	포터	패닝	캠벨
구조	삼분적 구조 (완료상, 미완료상, 상태상)	이분적 구조 (완료상, 미완료상)	이분적 구조 (완료상, 미완료상)
시간 의미	없음	있음	없음, 공간적 의미 포함
완료 시제	상태상에 포함	완료상에 포함	미완료상에 포함
설명	1. 부정과거시제는 완료상에 2. 현재시제, 미완료 시제는 미완료상에 포함되지만 미완료상은 현재시제에 비해 원근성을 가짐. 3. 현재완료시제,	1. 부정과거시제와 완료시제를 완료상에 포함. 2. 미완료, 현재시제를 미완료상에 포함. 3. 완료시제가 동사 상, 시간적 의미, 동작류	1. 부정과거시제는 완료상에 2. 현재, 미완료, 현재완료, 과거완료 모두 미완료상에 포함. 3. 미완료상 안에서 현재시제와 완료 시제는 평행을

28) 모두 나열할 수 없기에 몇 명의 제안만 예를 들어보자면, 코헨(D. Cohen)은 그리스어에는 세 개의 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완료시제를 독립적인 상으로 분류한다. D. Cohen, *L'aspect Verbal*, L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67, 110-111. 포터 이전에 그리스어 동사 상에 관한 이론에 기여했던 로우(J. P. Louw) 역시 완료시제 형태를 상태적으로 설명하였다. J. P. Louw, "Verbale Aspek in Grieks", *Taalfasette* 15 (1971), 13-26.

29)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07.

	포터	패닝	캠벨
	<p>과거완료시제는 상태상에 포함되지만 현재완료는 과거완료에 비해 원근성을 가짐.</p>	<p>모두를 포함한다고 주장.</p>	<p>이루고 미완료시제와 과거완료시제가 평행을 이룸. 4. 미완료상에 포함된 네 개의 시제는 근접성의 차이로 구분 가능함. 과거완료→미완료 →현재→현재완료 순으로 근접성이 더해짐.</p>

3.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3.1. 의미론 체계와 화용론의 차이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드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터는 자신의 그리스어 문법에 대한 언어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그것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일부분인 형태적 체계기능문법(formal systemic functional grammar)이다.³⁰⁾ 이 문법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형태(form)를 통하여 의미(meaning)를 전달하는 기호이다. 하지만 형태와 의미의 관계는 자칫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미론(semantics)은 반드시 체계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근대 언어학의 기초를 놓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F. de Saussure)의 구조주의적 언어학적 개념과 맥을 함께한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둘 사이를 연결하는 랑그(Langue) 즉,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파롤(Parole)은 주어진 체계 안에서 화자와 저자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³¹⁾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어의 체계를 의미하

30) 형태적 체계기능문법은 M. Berry, ed., *Meaning and Form: Systemic Functional Interpretations*, ADP 57 (Norwood, NJ: Ablex, 1996)을 참고하라.

31) F.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 Baskin, trans. (London: Peter Owen, 1974)를 참고하라.

는 랑그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무작위로 사용된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문법적 체계 안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언어의 체계(예, 동사 상 체계)안에서 문법적 선택(완료상, 미완료상, 상태상 중 선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계열체 안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의미론적 대조를 통해 강화된다. 동사 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자가 완료상을 선택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완료상이 아닌 다른 상들의 의미론적 대조 속에서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태적 체계기능문법은 문법을 하나의 의미 형성 체계로 보며 그 체계 안에서 저자는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문법적 선택을 한다.³²⁾

이와 같은 언어학적 배경에서 포터는 그의 동사 상 이론을 설명할 때 의미론의 체계를 강조한다. 언어의 용례를 파악하여 모든 용례적 의미를 포괄하는 최대주의적(maximalism) 관점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kernel)이고 기초가 되는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론(semantics)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³³⁾ 바꾸어 말하자면, 문법적 체계 안에서 동사 시제 형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동사 상은 화용론이 아닌 의미론(semantics)과 연결되어 있다.³⁴⁾ 그렇다면 의미론과 화용론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앤드류 나셀리(A. D. Naselli)의 간결하고도 정확한 설명을 참고하면, “동사 상 이론은 시제 형태의 의미론과 화용론을 구분한다. 의미론이란 탈문맥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제 형태 자체가 문맥과 상관없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말한다. 화용론이란 문맥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사 시제의 형태가 특정 문맥에서 이해되는 의미를 지칭한다.”³⁵⁾ 다시 말해서 의미(meaning)와 의미론(semantics)은

32) M. A. K. Halliday,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Baltimore, MD: University Park Press, 1978), 19. 이는 문법적 요소가 확고한 법칙으로 작용하여 언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촘스키(N. Chomsky)의 생성문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할리데이(M. A. K. Halliday)에 의하여 제안된 체계기능언어학은 촘스키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과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을 기초로 한 형식언어학(formal linguistics)의 이론에 반대한다. 촘스키의 언어학은 인간이 보편적인 문법체계를 선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할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은 인간은 각각의 사회작용 속에서 언어를 배우며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Ibid., 27-31.

33) 언어학적 관점으로 그리스어 문법에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는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 J. Decker, *Reading Koine Greek: An Introduction and Integrated Workbook*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D. L. Mathewson and E. E. Ballantine, *Intermediate Greek Grammar*; D. L. Mathewson, *Voice and Mood: A Linguistic Approach* (Grand Rapids: Baker, 2021) 등이 있다.

34) S. E. Porter, “In Defence of Verbal Aspect”,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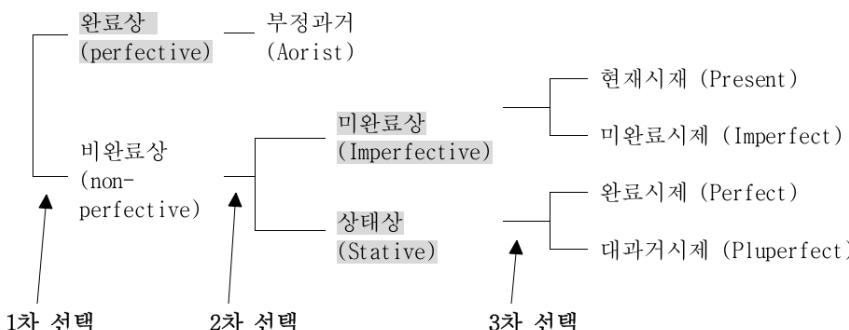
35) A. D. Naselli, “A Brief Introduction to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DBSJ* 12 (2007), 18.

동의어가 아니다. 의미는 어휘, 언어의 형태, 체계, 문맥에 모두 존재한다.³⁶⁾ 반면 의미론은 한 문법요소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유하고 핵심적인 의미에 관한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동사 상의 의미론을 위하여 포터는 랑그 즉, 체계를 세운다. 동사 시제 형태를 어간에 따라 부정과거, 현재, 완료 형태로 구별하며, 그 3가지가 동사 시제의 체계를 구성한다.³⁷⁾ 즉, 형태학적으로 동사의 시제 형태가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는 동사 상 체계를 구축하므로 3가지 동사의 상이 형성된다. 따라서 완료시제는 독립적인 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포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어 동사 체계에서 형태적 의미론은 담화의 문맥 안에서 그것이 다양하게 적용되도록 확장되기 전에 먼저 형성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해석자는 완료시제 형태 자체의 의미를 들여다보기 전에 문맥 안에서 그 시제 형태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먼저 관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다.”³⁸⁾

이와 같은 언어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포터는 아래와 같은 동사 상의 의미론적 체계를 제안한다.

<표 2> 스탠리 E. 포터의 동사 상 체계



위의 표는 그리스어 동사 상의 체계와 선택에 따른 의미 잠재성(meaning potential)을 보여 준다. 즉, 저자가 동사의 시제 형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일차적으로 완료상과 비완료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완료상을 선택하는 것은 부정과거시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며, 비

36) J. Lyons, *Semantic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4.

37)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216-219를 참고하라.

38)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14.

완료상은 그 외에 다른 시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화자가 비완료상으로 표현하기 원하면 이차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하나는 미완료상이며 현재시제 형태와 미완료시제 형태로 표현된다. 만약 미완료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는 상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료시제 형태와 과거완료시제 형태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시제 형태와 미완료시제 형태 그리고 완료시제 형태와 대과거시제 형태 사이의 선택은 화자가 동사의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접성을 나타낸다. 즉, 현재시제 형태는 미완료시제 형태보다 사건을 근접거리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묘사할 때 사용하는 시제이며 과거완료시제 형태 또한 완료시제 형태보다 근접성을 갖는다.³⁹⁾

포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미론의 체계에서 저자의 계열체적 선택은 그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들에 비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저자가 부정과거시제 형태를 선택한다면, 현재시제 형태나 완료시제 형태보다 부정과거시제 형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료시제 형태의 선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자가 현재시제 형태가 아닌 완료시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시제 형태가 드러내지 못하는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⁴⁰⁾ 이와 같은 설명은 완료시제 형태가 현재시제 형태와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상태상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캠벨의 주장에 대한 대답이 된다.

포터에 따르면, 완료시제 형태를 부정과거시제 형태와 동일한 동사상에 위치시키는 패닝과 미완료상에 위치시키는 캠벨의 이론은 언어학적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사 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⁴¹⁾ 마지막으로 포터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동사 상의 의미보다 번역의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번역은 동사 상의 의미가 결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체계 안에서 동사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기보다 번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방법론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⁴²⁾

39)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197.

40)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07.

41) Ibid., 203-209.

42) S. E. Porter, "Tense Terminology and Greek Language Study",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6 (New York: Peter Lang, 1996), 43;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205. 포터의 이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비평가들의 핵심은 포터가 완료시제를 때로는 현재형과 같이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형과 같이 번역한다고 제안한다.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WUNT 167 (Tübingen: Mohr Siebeck, 2004), 316-336; C. R. Campbell, "Breaking Perfect Rules", 139-155.

안타깝게도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동사 상을 설명할 때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부정과거가 매번 요약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과거는 어휘 혹은 문맥과 같은 다른 언어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요약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⁴³⁾

문법적인 범주는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모든 맥락에서 하나의 요소로부터 단일한 중심 메시지를 발견할 필요는 없다.⁴⁴⁾

비록 헬라어 동사의 상이 발생된 사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사건 묘사를 위해 사용된 특정 상이 사건에 대한 저자의 강조 점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저자가 의식적으로 상의 선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우리는 상의 선택적 사용과 배열의 분석으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특정 상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경우, 발생된 사건이나 문맥 또는 저자 자신이 선택한 진술 방식 등에 의해 동사의 시제 형태들이 선택의 제한을 받는다.⁴⁵⁾

위 동사 상의 설명에서 공통점은 문맥을 통해 동사의 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다. 문맥에서 결정되는 것은 의미론이 아닌 화용론에서 발견되는 의미이다. 언어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들의 자율적 체계이기에 각 구조는 그 자체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물론 의미론과 화용론은 연결되어 있다. 소쉬르 역시 랑그와 파롤을 떼어내어 의미의 분리 혹은 고립을 의도하지 않았고, 문맥적 의미와 단어의 의미(예, 동일한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 쓰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차이) 혹은 문법의 의미와 문법 사용의 의미(예, 의문법이 문맥에 따라 때로는 명령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사 상의 의미론적 접근은 일차적으로 시제의 체계 안에서 이

43)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556.

44) C. J. Thompson,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 o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Bellingham: Lexham, 20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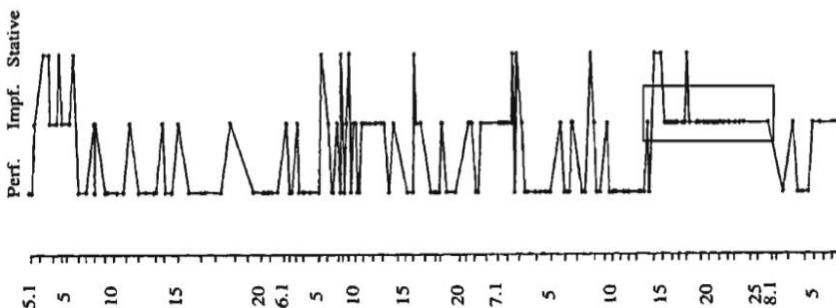
45)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791.

해되어야 한다. 저자의 시제 형태 선택이 특정 문맥과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가는 그다음의 문제이다. 포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 사용자의 선택이 … 해당 언어의 동사 체계 구조에 의해 제시되거나 요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⁴⁶⁾ 다시 말해서 저자의 선택은 문법적 체계에 제한된다. 문법적 체계를 벗어난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터의 이론은 형태와 의미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동사 상의 삼분적 구조라는 의미론적 체계를 형태론에 기초하여 제안한 것으로 동사 상의 활용이나 번역을 중심으로 완료시제를 이해하는 패닝이나 캠벨보다 더 언어학적 이론에 기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담화의 범주까지 확대된 동사 상 연구

이제까지 설명한 언어학적 이론의 차이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담화의 범위에서 동사 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포터의 이론을 비판하는 캠벨은 그의 비판 근거를 번역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사 상을 특정 단어 혹은 문장의 시제 형태에서만 논한다. 하지만 포터에 따르면 동사 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문맥에서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사 상의 분포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을 사용하는 저자의 언어적 기법을 분석하는 것은 동사 상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의 표는 로마서 5-7장의 동사 상의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표3> 로마서 5-7장의 동사 상 분포도⁴⁷⁾



46) S. E. Porter, “In Defence of Verbal Aspect”, 27.

47) S. E. Porter and M. B. O'Donnell. “Semantics and Patterns of Argumentation in the Book of Romans: Definitions, Proposals, Data and Experiments”, S. E. Porter, ed., *Diglossia and Other Topics in New Testament Linguistic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0), 195.

위 그래프에서 박스로 표기한 곳은 로마서 7:14-25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는 완료상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미완료상과 상태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완료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로마서 5장은 아담으로 인한 죄의 유입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죽음 등의 사건이 설명되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바울은 주로 완료상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완결되어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에 반하여 로마서 7:14-25는 곤고한 자의 요동치는 내적 갈등을 묘사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바울은 현재시제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현재시제 형태는 저자가 동사의 행위와 사건 자체 혹은 사건의 연속성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할 때 사용한다.⁴⁸⁾ 그렇기에 현재시제 형태는 전경(foreground)에 해당하는 시제로서 등장인물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참조 사항이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바울은 동사의 행위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근접거리에서 바라보듯이 진술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근접 문맥인 로마서 7:7-13에서 바울은 죄의 유입을 설명할 때 완료상을 주된 동사 상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사건을 더 이상 추가적인 행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료된 것으로 묘사하여 완료상을 사용한 후, 그 죄의 유입이 ‘나’라는 사람에게 미친 결과를 설명할 때 미완료상을 사용하여 아직 완결되지 않은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 로마서 5-7장에서 죄의 유입은 배경으로 기능하는 반면, 그 죄에 대하여 씨름하고 있는 ‘나’는 전경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문장 단위에서 동사 시제 형태에 따른 동사 상의 의미와 번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안에서 동사 상의 분포의 분석을 통하여 의미를 제안하는 것이다.

4. 적용 사례: 동사 상 이론의 삼분적 구조를 적용할 때 해석상의 이점

마지막으로 동사 상 이론의 삼분적 구조에 따라 신약성경을 이해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해석상의 이점을 요한복음 20:1-10의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삼분적 구조 이론을 따르면 완료상의 부정과거시제 형태는 주된 스토리라인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담화의 배경적 기능을 감당

48) S.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196.

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큰 틀을 형성한다. 미완료상의 미완료시제 형태는 주된 스토리라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진술을 할 때 그리고 보충적이고 보조적인 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한다. 현재시제 형태는 중요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가오는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상태상의 완료시제 형태는 담화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는 시제 형태이며 형태론적으로 다른 시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형을 보인다. 즉, 의미의 무게감이 다른 시제 형태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⁴⁹⁾ 그리고 미완료상의 두 시제 형태(현재와 미완료) 그리고 상태상의 두 시제 형태(현재완료와 과거완료)는 각각 원근성과 근접성의 관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삼분적 구조는 담화의 입체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또한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1-10의 동사 상 사용은 아래와 같다.⁵⁰⁾

- 1 Τῇ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ὴ {έρχεται} προὶ σκοτίας ἔτι οὐση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βλέπει} τὸν λίθον τύμπεν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 2 {τρέχει} οὖν καὶ {έρχεται}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καὶ πρὸς τὸν ἄλλον μαθητὴν ὃν <έφίλει>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Ὕραν τὸν κύρι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καὶ οὐκ οἴδαμεν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3 Ἐξῆλθεν οὖν ὁ Πέτρος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καὶ <ῆρχοντο>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4 <ἔτρεχον> δὲ οἱ δύο ὄμοι·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προέδραμεν τάχιον τοῦ Πέτρου καὶ ἥλθεν πρώ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5 καὶ παρακύψας {βλέπει} κείμενα τὰ ὅθινα, οὐ μέντοι εἰσῆλθεν.
- 6 {έρχεται} οὖν καὶ Σίμων Πέτρος ἀκολουθῶν αὐτῷ καὶ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θεωρεῖ} τὰ ὅθινα κείμενα,
- 7 καὶ τὸ σουδάριον, ὃ <ῆ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αὐτοῦ, οὐ μετὰ τῶν ὅθινῶν κείμενον ἀλλὰ χωρὶς ἐντευλιγμένον εἰς ἔνα τόπον.
- 8 τότε οὖν εἰσῆλθεν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ὁ ἐλθὼν πρώ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πίστευσεν.
- 9 οὐδέπω γὰρ ἵδεισαν τὴν γραφὴν ὅτι {δεῖ}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ἀναστῆναι.
- 10 ἀπῆλθον οὖν πάλιν πρὸς αὐτοὺς οἱ μαθηταί.

1 안식일 후 첫 번째 날에 마리아 막달라가 새벽에 일찍이 무덤이 있는

49) cf. D. L. Mathewson and E. E. Ballantine, *Intermediate Greek Grammar*, 115.

50) 그리스어 번역은 저자의 것이다.

곳을 {갔다}. 그리고 그녀는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2 그러므로 그녀는 {달렸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 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주님을 무덤으로부터 가져갔다. 그들이 그를 어디에 놓았는지 우리 가 알지 못한다.

3 그러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왔다. 그리고 무덤으로 <갔다>.

4 둘은 <뛰었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는 베드로를 앞질러 뛰어가 먼저 무덤으로 갔다.

5 그리고 몸을 숙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그리고 시몬이 그를 따라 {왔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이 놓인 것을 {보았다}.

7 그리고 머리에 <있었던> 수건이 옷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쪽에 접 혀서 놓여 있었다.

8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보았고 믿었다.

9 그들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10 그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요한복음 20:1-10을 보면 부정과거(밀줄), 현재(중괄호), 미완료(화살괄호), 완료 및 과거완료(굵은글씨 & 물결밀줄) 시제 형태가 혼용되고 있다.⁵¹⁾ 동일한 사건을 묘사할 때 이토록 혼합된 시제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어 동사 시제가 행위의 실제적인 발생 지점(시간적 의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간 것은(1절, 현재시제 형태) 현재 일어난 사건인데, 마리아가 무덤으로 간 것보다 뒤에 발생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 행위는(3절, 부정과거시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내러티브가 연속적인 현재시제 동사(1절, 2절의 ἔρχεται, βλέπει, τρέχει, λέγει)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동사 상의 사용은 장면의 전환을 암시한다. 앞선 요한복음 19장은 그들이 예수를 새 무덤에 두었다(부정과거시제)는 기록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면서 현재시제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즉, 예수가 무덤 안에 놓인 사건은 외부자적 관점으로 더 이상 어떤 행위의 변형이 끼어들 수 없는 완결적 관점으로 묘사한 후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 마리아의 행동을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51) 본디 동사 상 이론은 비정형동사에도 적용되지만 제공한 예시에서는 정형동사만 분석한다. 단, ἡρμένον은 논문의 논지를 위해 포함시켰다.

과 같이 묘사한다. 즉,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행위,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는 행위,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행위가 저자의 기록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저자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부여한다.

2절에서는 미완료시제 형태 동사를 추가한다. 그런데 미완료시제 형태 동사 앞뒤로 현재시제 형태 동사가 둘러싼다. 미완료시제 형태는 현재시제 형태와 함께 미완료상에 포함되는데, 둘 사이는 원근감을 통하여 구별한다.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한 것은 마리아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말하는 행위가 현재시제 형태를 통하여 전경으로 드러나는 반면 제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하여 미완료시제 형태를 사용하여 약간 떨어진 관점을 제공한다. 즉, 마리아가 달려가 소식을 알린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묘사를 미완료시제 형태 *ἐφίλει*를 통해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절에서 저자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이 예수를 데려갔다. 그들이 어디에 예수를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삼인칭 복수(그들)가 예수에게 행한 행위(가져감, 시신을 둠)는 모두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묘사된 반면 마리아의 행위는 완료시제 형태로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시간적으로는 모든 행위(가져가고, 두고, 알고)가 과거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에 다른 시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배경적 기능을 부여한 반면,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강한 현저성이 있는 완료시제를 사용하여 최전경(frontground)에 위치시킨다. 즉, 저자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으며 최초의 목격자인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도드라지는 관점으로 표현한다. 이는 시신의 부재를 최전방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절에서도 저자는 완료시제 분사를 사용하여 돌이 움직여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묘사할 때 모두 상태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3-6절의 동사 상 사용도 흥미로운 패턴을 제공한다. 베드로가 일어나 나온 것은 완료상,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보충적인 행동인 무덤을 향해 가는 행위는 미완료상(미완료시제 형태), 두 제자가 뛰는 행위는 미완료상(미완료시제 형태), 다른 제자(요한)가 달려가는 모습은 완료상(부정과거시제 형

태)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모두 미완료상(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한다. 여기에서도 입체감이 드러난다. 베드로가 일어나 나오는 것은 완결된 행위로 전체적인 묘사를 제공하지만, 그들이 뛰는 행위는 진행되고 있는 관점과 완료된 관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그런 후 두 제자가 무덤에 도착하여 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천을 바라보는 것은 모두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하여 더 근접거리의 관점으로 묘사한다. 즉, 부정과거시제 형태로 시작하여 미완료시제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시제 형태를 통해 저자의 관점이 먼 곳에서부터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상태상(과거완료시제 형태)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는 저자의 관점을 강조한다. 캠벨의 이론에 따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위는 가장 원거리에서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두 제자의 상태에 대한 강조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들이 무덤까지 갔고(부정과거시제 형태), 그들이 예수가 거기에 없는 것을 보았다(현재시제 형태).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과거완료시제 형태) 있다는 것이다. 즉, 부정과거, 현재, 그리고 과거완료로 점차 옮겨가면서 저자의 관점이 배경, 전경, 최전방으로 카메라가 줌인(Zoom-in)하듯이 제자들의 행동(가고, 보고, 알지 못함)을 차례차례 비추고 있다.

이 담화에서 마리아의 행위와 제자들의 행위는 중복되는 것이 많다. 주로 ‘가고’ ‘보는’ 행위가 중첩된다. 그리고 해당 동사들은 주로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설명하는 동사들, 즉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돌이 옮겨져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모두 공통으로 상태상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사 시제의 다양한 사용과 담화에 입체감을 더하고 부활을 묘사하는 그의 관점과 강조점에 색채를 더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동사 상 논쟁이 발생하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삼분적 구조가 주는 해석적 유익을 제시하였다. 동사 상 논쟁의 핵심은 동사 상 이론에 대한 언어학적 체계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용례 혹은 화용론적 관점에

서 접근하는가의 차이에 있다. 포터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고 동사 상의 의미론을 체계(system, langue)안에서 규정한 후 동사 상 시제의 시간적 의미와 동작류의 의미를 화용론적 관점으로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패닝과 캠벨에 비해 가장 언어학적 이론에 기초한 동사상을 제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²⁾ 동사상을 연구할 때 체계에 기초한 의미론에서 시작하여 특정 시제 형태가 문맥에서 어떻게 가능하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반대로 용례나 문맥에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동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역방향적인 접근으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패닝의 이론은 완료시제에 시간성, 동작류, 동사상을 혼합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완료시제가 등장할 때마다 문맥 안에서 이것이 시간적 의미인지, 동작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동사상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한다. 캠벨은 번역상의 이유로 현재시제와 완료시제를 모두 미완료상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를 근접성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태적 차이(세 종류의 어간)를 간과하는 모델이며 문법적 의미와 언어의 번역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삼분적 구조는 어간의 차이 즉, 형태의 차이에 따른 계열체적 시스템을 통하여 동사상의 의미를 제안한다. 즉, 언어의 형태와 의미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한다. 더욱이 삼분적 구조는 담화 범위에서 동사상을 분석할 때 입체감과 의미의 역동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삼분적 구조 접근이 신약성경을 해석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준다.

<주제어>(Keywords)

동사상, 시제 형태, 구조주의 언어학, 체계기능문법, 담화분석.

Verbal Aspect, Tense-form, Structural Linguistic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Discourse Analysis.

(투고 일자: 2025년 1월 27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0일)

52) 실제로 포터 자신도 캠벨과 패닝의 이론에 대한 비평을 여러 곳에서 제안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언어학적 이해 혹은 이론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동사상의 그리스어 문법의 언어학 시대에 대두된 이론임을 감안할 때 포터의 비평은 매우 적실하다. 캠벨과 패닝에 대한 포터의 비판은 S. E. Porter, "Three Arguments", 175-194; S. E. Porter,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195-218.

<참고문헌>(References)

- 고병찬, 김주한, “헬라어 동사의 상(相, aspect)의 주석적 사용의 주의점 제안”, 「신약연구」 10 (2011), 789-823.
- 박윤만, “동사상과 빌레몬서 담화처리”, 「신약연구」 10 (2011), 941-976.
- 박윤만, “신약성서 헬라어의 현저성 표지들(Prominence Markers)”, 「신약연구」 9 (2010), 309-334.
- 우상혁, “성경 헬라어 상 연구: 칠십인경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0 (2011), 59-83.
-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주석적 적용 및 제한점 제안”, 「성경원문연구」 54 (2024), 210-244.
- 장성민, “‘동사상 이론’에 비추어 본 마가복음의 서사 구조”, 「신약논단」 28 (2021), 501-534.
-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신약논단」 29 (2022), 1-30.
- 장성민, “마가복음의 부사적 분사 번역 제안 — 마가복음 1:1-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 (2019), 301-342.
- 장성민, 『중급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 정창욱,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연구: 요한1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4 (2024), 189-209.
- Berry, M., ed., *Meaning and Form: Systemic Functional Interpretations*, ADP 57, Norwood: Ablex, 1996.
- Blass,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
- Brugmann, K. and Delbrück, B.,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2nd ed., 5 parts in 9 vols., Strasburg: Trübner, 1897-1916, Reprint, Berlin: de Gruyter, 1967.
- Campbell, C. R.,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Campbell, C. R., “Breaking Perfect Rule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Greek Perfect”, S. E. Runge, ed., *Discourse Studie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A Festschrift in Honor of Stephen H. Levinsohn*,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1, 139-155.
- Campbell, C. R.,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3, New York: Peter Lang, 2007.
- Caragounis, C. C.,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WUNT 167,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Cohen, D., *L'aspect Verbal*, L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 Crellin, R., "The Semantics of the Perf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2016, 430-454.
- Curtius, G., *The Greek Verb: Its Structure and Development*, A. S. Wikins and E. B. England, trans., London: John Murray, 1880.
- Decker, R. J., *Reading Koine Greek: An Introduction and Integrated Workbook*,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 Decker, R. J., *Temporal Deixis of the Greek Verb in the Gospel of Mark with Reference to Verbal Aspect*, Studies in Biblical Greek 10, New York: Peter Lang, 2001.
- De Saussure, F.,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ade Baskin trans., London: Peter Owen, 1974.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Halliday, M. A. K.,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78.
- Huffman, D. S., *Verbal Aspect Theory and the Prohibitio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6, New York: Peter Lang, 2014.
- Louw, J. P., "Verbal Aspect in the First Letter of John", *Neotestamentica* 9 (1975), 98-104.
- Louw, J. P., "Verbale Aspek in Grieks", *Taalfasette* 15 (1971), 13-26.
- Lyons, J., *Semantic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Mathewson, D. L.,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inguistic Biblical Studies 4, Leiden: Brill, 2010.
- Mathewson, D. L., *Voice and Mood: A Linguistic Approach*, Grand Rapids: Baker, 2021.
- Mathewson, D. L. and Ballantine, E. E.,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 McKay, K. L.,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SBG 5, New York: Peter Lang, 1994.
- McKay, K. L., *Greek Grammar for Students: A Concise Grammar of Classical Attic with Special Reference to Aspect in the Verb*,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74.

- Moulton, J. H.,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Prolegomena*, Edinburgh: T. & T. Clark, 1908.
- Naselli, A. D., “A Brief Introduction to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DBSJ* 12 (2007), 17-28.
- Olsen, M. B.,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7.
- Pang, F. G. H., *Revisiting Aspect and Aktionsart a Corpus Approach to Koine Greek Event Typology*, Linguistic Biblical Studies 14, Leiden: Brill, 2016.
-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 Porter, S. E.,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Theory and Practice*, Studies in Biblical Greek 6, New York: Peter Lang, 1996.
- Porter, S. E., “The Perfect Tense-Form and Stative Aspect: The Meaning of the Greek Perfect Tense-Form in the Greek Verbal System”, *Linguistics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95-215.
- Porter, S. E., “Three Arguments Regarding Aspect and Temporality”, *Linguistic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Tools, Methods, and Practice*, Grand Rapids: Baker, 2015, 175-194.
- Porter, S. E., *Verbal Aspect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 Lang, 1989.
- Porter, S. E. and O'Donnell, M. B., “Semantics and Patterns of Argumentation in the Book of Romans: Definitions, Proposals, Data and Experiments”, S. E. Porter, ed., *Diglossia and Other Topics in New Testament Linguistic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0, 154-204.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14.
- Schwyzer, E., *Griechische Grammatik auf der Grundlage von Karl Brugmanns „Griechischer Grammatik”*, 4 vols., HA 2/1, Munich: Beck, 1939-71.
- Thompson, C. J., “What is Aspect?: Contrasting Definition on General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Studies”,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Bellingham: Lexham, 2016, 13-80.
- Thracis, D., *Ars Grammatica*, Gustavus Uhlig, ed., Lipsiae: B. G. Tübneri, 1883.
- Vendler, Z.,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 (1957), 143-160.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iner, G. B., *A Treatise on the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Regarded as a*

Sure Basis for New Testament Exegesis, W. F. Moulton,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82.

<Abstract>

The Combat of Verbal Aspect Theories: What Makes Them Different?

Doosuk Kim
(Kwangshin University)

The verbal aspect in Greek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the semantics of Greek verb tense forms. It also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both Greek grammar and New Testament exegesis. Since Stanley E. Porter's seminal work in 1989, numerous grammarians have contributed to this debate. However, a consensus remains elusive, as most studies reaffirm the fundamental disagreements among Porter, Fanning, and Campbell. Despite extensive research on the Greek verbal aspect, there has been a notable absence of robust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se divergent viewpoints. Instead, many preceding studies merely adopted one of the three (Porter, Fanning, and Campbell) models without further explo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clarification of what makes them different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The current paper argues that the core debate of verbal aspect theory stems from two primary factors: (1)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language itself, and (2) disagreement over whether verbal aspect analysis should extend to the discourse level.

First, the conflict between the three main figures regarding the Greek verbal aspect occurs due to the different approaches and notions of language. Of the three, this article argues that Porter's model is the most consistent and theoretically sound from a linguistic standpoint. Unlike the others, Porter provides a clear semantic system that explains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tense form and meaning, whereas Fanning situates the perfect tense form in three different meaning categories, i.e., time, type of action, and aspect, Porter defines it as a stative aspect. Moreover, according to Campbell, when it comes to the translation, there is no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and perfect tense form, leading him to include the perfect tense form in imperfective aspect. In contrast, Porter rightly points out that translation cannot be a decisive factor for the semantics of verb tense form. Second, the advantage of Porter's model is that he expands the scope of analysis from the word or sentence level to the

discourse level. This approach is beneficial because observing the overall use of the verbal aspect in a discourse can help interpreters comprehend how the author employs the language and what function each verb tense form plays in the discourse. Following this line of thought, the present paper research argues that verbal aspect theory should transcend both translation issues and sentence-level analysis, maintaining its relevance at the discourse level.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study concludes with a verbal aspect analysis of John 20:1-10 as a test case.